

“눈높이 맞는 지역 일자리 없다” 고향 떠나는 청년들

백척간두에 선 호남경제

② 청년 일자리가 없다

지난해 광주 시민 8000여명이 타·시도로 떠나갔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5000여명이 15~29세의 청년이었다. 전남지역의 사정도 비슷하다. 전남지역 청년들은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4000여명가량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은 일자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광주형일자리 청년 취업 해법 뭘까-

광주 지난해 이향 8천명 중 5천명 15~29세...전남 4천명 구직 청년들 낮은 임금에 신음...광주시, 광주형일자리 생활농림어업 일자리 많은 전남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 박차

27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2분기 광주지역 청년 취업자는 1만2000여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40.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4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청년 일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의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인구는 2004년 이후가

장 큰 폭인 7043명이 줄었고, 광주지역 합계 출산율(1.168)도 전국 평균(1.172)에 못 미치고 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위해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도 지난 2014년 4186명, 2015년 5649명, 2016년 4253명, 2017년 5096명에 달했다.

일자리 구한 청년들도 낮은 임금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 광주시의 청년비상급

장을 신청한 광주지역 사회초년생의 평균 임금은 134만원이었으며, 10명 중 4명가량은 자살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 일자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컨트론타워 격인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일자리로 통한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 분야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광주형일자리가 얼마나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전남,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늘린다-전남지역 일자리는 농림어업 중심인 탓에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전남지

역 농림어업 종사자는 22.2%(전국 5.1%)에 달하는 등 농림어업 중심의 일자리가 많고, 상대적으로 제조업 종사자는 10.4%(전국 16.7%)에 그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청년들도 해마다 고향을 떠나고 있다. 지난해 6404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청년들의 희망 직종과 실제 일자리 간에 불일치 탓에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직원을 찾지 못한 기업의 구인난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의 빈일자리는 지난 2016년 4400개, 2017년 3700개에 달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전남도는 이 같은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산업현장의 구인 수요를 반영해 해양플랜트, 기계정비, 드론, 에너지·ICT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권역별 잡 매칭데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년의 수가 줄면서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고용·노동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김동철 의원 등이 27일 신안 흑산공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시찰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국회 환노위, 흑산공항 예정지 방문 실태 파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신안군 흑산면 흑산공항 건설공사 예정지를 방문,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현지 시찰에는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과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환경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전남도, 신안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시찰단은 이날 오전 8시10분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현지에 도착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경쟁사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신안군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철새보존과 환경보호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시찰단은 대체 서식지와 공항건설 사업 대상지를 둘러봤다.

김학용 위원장은 "인간과 자연이 슬기롭게 공존공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풀어야 할 숙제"라며 "국가가 본의 아니게 공동체를 위해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를 본 국민들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흑산도에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1160m, 폭 30m의 활주로를 갖춘 54만7000㎡

규모의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예상 소요 사업비는 1833억원이다.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확보로 매년 60만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항건설 추진과정에서 2016년 11월 제117차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철새 등 조류충돌 방지대책과 경제적 타당성 재분석, 대안 입지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달 20일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추가 보완자료 없이 종전 보고서를 토대로 공항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서식지의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靑 개각 임박...송영무 국방 유임 주목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후속 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개각 가능성이 접지되는 부처는 국방부·교육부·환경부·여가부·산림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국방부 장관의 거취다.

여권 관계자들은 송영무 장관이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를 실고 있다. 국방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장관이 '기부사형부' 계엄령 문건 파동과 잇단 실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여전히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낙점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교육부가 아닌 여가부를 맡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비율 30%'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유 의원의 입각설에 힘을 실는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경제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부나 고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개혁 중 교체 부담 관측 속 '기사사 실언' 교체가능성 여전
교육부·환경부·여가부·산자부·노동부 등 개각 점쳐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지시...명문화 속도낼 듯

부 장관을 새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용부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여성 의원인 민주당 한정에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업자원부 장관의 경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소폭으로 예상됐던 개각이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

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라며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지급보장을 명시할 경우 미래 국가채무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면 기술적으로 잘 명문화하면 그런 부담은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어 정부의 검토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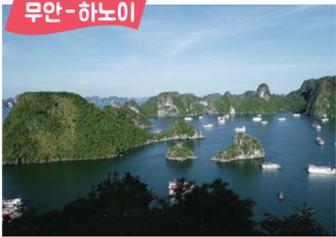
하나팩

추석여행

추석특별기 타고 무안공항에서 떠나요!

9월 21일 홋카이도(북해도)
9월 22일 대만 / 하노이

9/22 출발
무안-하노이



하노이/하롱베이/옌프 5일

발마사지+4성급호텔
1,2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 비엠펙항공 ✈ 하롱베이(3)
#비경관광 #옌프 케이블카 탑승

9/22 출발
무안-대만



대만/지우펀/야류 4일

천둥날리기+단수이
1,1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 중화항공 ✈ 타이페이(3)
#오감만족 #식도락여행 #한정특가

9/21 출발
무안-삿포로



홋카이도(북해도) 5일

온천호텔2박+게요리
1,890,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 티웨이 항공 ✈ 삿포로(1)-노보리벡트(1)-도야(1)
#삿포로 시내관광 #오토루 운하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요일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전환/발판접수 Tel. 1577-233ARS 안내번호 020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문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